

[특집 I : 2012년 축종별 배합사료산업 전망]

낙농 사료산업 전망



박영준

CJ제일제당(주) 축우PM, 부장

2011년은 어느해 보다 낙농에 있어 산업 전반에 걸쳐 매우 힘들었던 한해였다. 유업체는 원유가 부족해 유통업체에 공급하는 물량을 제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으며 낙농목장에서는 목장재건과 목장규모확장을 위해 구입해야 하는 초임만삭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올라 농가의 마음을 두번 울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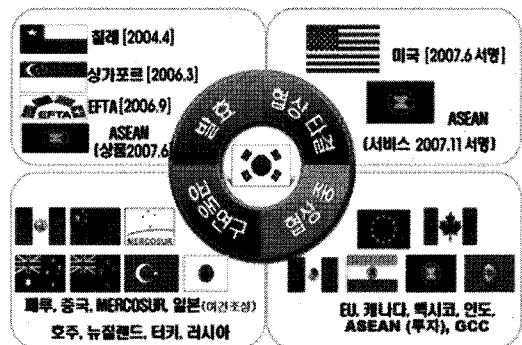
또한 설상가상으로 기상이변에 따른 곡물 가격의 상승,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달러환율의 상승, 원유가협상에서 납유거부라는 초유의 사태와 같은 아픔을 통한 유대인상 등등 내,외적인 변화가 심하였던 한해였다.

지난 8월16일 낙농가들과 우유업체간의 130원/l의 원유가 인상되어 낙농경영현실에 어느정도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넘어야 할 고비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한미FTA, 한EU FTA 등 현재 진행중인 또는 협상중인 고비들이 산재되어 있어 국내 우

유산업에 경쟁력강화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2012년의 곡물가격은 다소 안정세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금년에도 있었던 달러 환율의 변동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계속되는 FTA를 이겨내기 위해 우리는 향후에 더욱 더 낙농의 국제경쟁력이 요구되어진다. 현재 발효 또는 타결, 협상 중인 국가들의 FTA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FTA 현황





1. 2012년의 낙농시장 예상변화

2012년의 예상되는 가장 큰 이슈는 1)원유 부족에 따른 원유수급문제와 2)축산업 허가 및 등록제도도입 및 적용 3)TMR공장의 HACCP이 예상된다.

1) 원유생산량은 2011년 연초에도 감소를 예측하였듯이 2010년 원유생산량은 207.3만 톤에서 2011년은 187.6만톤으로 전년비 9.5% 감소하였다. 따라서 우유생산량의 부족으로 우유소비량도 소폭감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업체의 목장확보를 위한 노력이 많았던 한해였으며 근본적인 원유수급 안정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단순한 의지와 수입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반면에 원유가 부족하다라는 것은 기회가 같이 있다는 것이다. 제한적 생산성향상을 지향했던 낙농목장 경영방향에서 최고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단 무리하게 유량에 집착하는 무리수는 분명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초심으로 돌아가 젖소의 기본에 충실한 생산성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2) 축산업 허가, 등록제도 도입에 대한 예고는 있었으며 2012년부터는 시행할 것이다.

축산업 허가, 등록제의 기본취지는 가축 질병 방역체계, 선진화를 위한 제도도입이며 허가대상인 종축업, 부화업, 정액처리업은 큰무리없이 진행을 예상하고 있으며 등

록대상인 전업규모의 2배규모는 2012년까지 등록예정이며 2013년은 전업농, 2014년 준전업농, 2015년에는 소규모 농가순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3) TMR공장의 HACCP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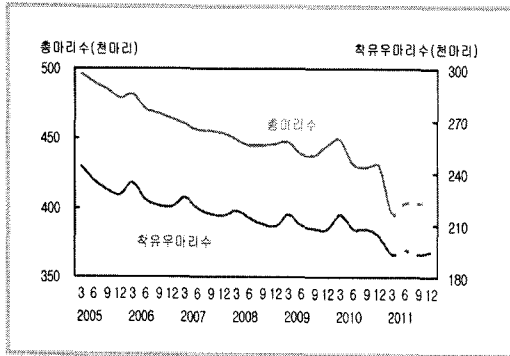
낙농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과 우수한 품질의TMR과 우유생산을 위해 안전사각지대였던 TMR공장의 HACCP 적용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향후 TMR공장의 품질안전 수준도 많이 높아질것으로 판단된다.

이외 작고 사소한 변화도 있지만 중점으로 변화하는 내용에 대해 다뤄봤다

2. 낙농사육 및 원유 현황

- 사육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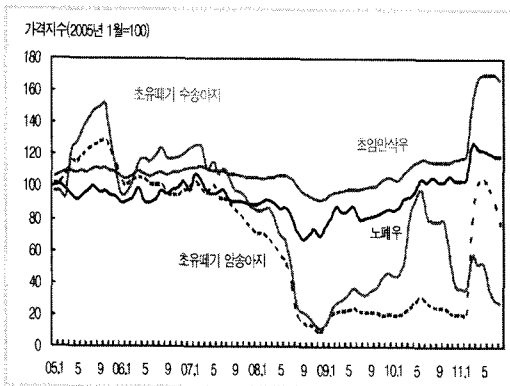
구제역의 매몰로 인해 사육두수를 2011년 말 기준 39만2천두로 예측하였으나 현재의 사육두수 추세로 예측하면 40만5천두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 이유는 원유부족에 의한 낙농가의 사육의지 상승으로 경산우의 도태 감소와 육성우의 도태, 폐사율이 감소로 판단된다. 구제역기간 중 인공수정을 할수 없어 2011년 4분기에는 일시적으로 사육두수의 증가는 둔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육가구 수는 2011년 6월 기준 6천1백호로 전년비 300호가 감소하였으나 활기찬 재입식 열기로 2012년에는 사육호수가 2011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자료 : 농촌경제연구원,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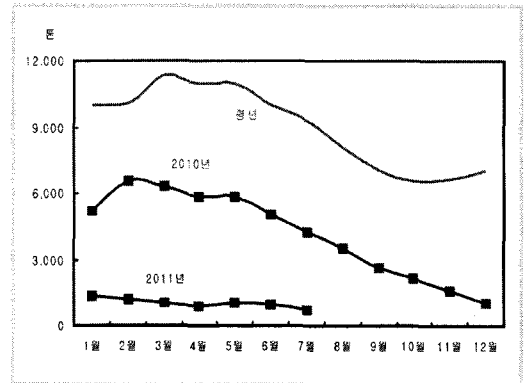
구제역의 종식후 빠르게 재입식은 3월부터 농장운영이 재개되면서 암송아지 수요가 급증하여 암송아지가 최고 40만원대까지 치솟았으며 이후 하락하여 28만원대에 보합세를 이루고 있다.

원유생산을 위한 초임만삭우는 최고 6월에 400만원 중반이상으로 높은 시장가격이 형성되었으나 최근 안정세를 보여 400만원 내외로 안정되어 재입식하는 농가들이 안정적인 입식이 가능하게 되었다.



분유의 재고량은 지속적으로 감소되면서 7월 현재 750톤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유생

산량 감소와 분유재고량 감소에 따라 유제품의 수입량은 전년대비 45.3%증가하였다.



2011년에 4/4분기에는 낙농사육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원유생산성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연초에 예측했던 39만5천두 보다 증가하여 40만5천두로 2011년을 마무리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낙농산업의 재성장 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3. 2012년 낙농목장의 나아갈 방향

위에서 언급했듯이 구제역과 폭염, 혹한기가 낙농의 위기였다면 원유수급불균형과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유대인상이라는 호재가 있다. 그간 곡물가격 상승 및 조사료가격의 상승으로 Down Feeding(줄여먹이기)을 했다면 2012년을 대비하여 전반적인 사양관리 및 급여관리를 업그레이드(Upgrade)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생산성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간과하기 쉬운 육성우 및 전환



기의 사양관리도 중요한 2012년 핵심 사양 관리라 할 수 있다.

한가지 우려되는 점은 원유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쉬운 방법인 배합사료의 과급의 길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목장의 수익과 미래를 저해하는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슬기로운 목장의 수익과 미래를 위해선 전문컨설턴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2012년을 대비하는 핵심은 다음과 같다.

- 1) 육성우 사양관리에 집중하라
- 2) 전환기 사양관리에 세밀한 관리

착유우의 생산성 향상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문 컨설턴트와 상의하여 목장의 성장단계를 설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성공하는 방법은 모두 다 알고있지만 누가 실천하는냐에 따라 성공의 갈림길은 분명해진다.

1) 육성우 사양관리의 집중

육성우에 대한 사양관리기술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책이나 사료회사의 홍보에 의해 교육 또는 전달되어 왔지만 관심높은 목장외에는 소홀한 대접을 받아온 것이 낙농목장의 현실이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현재와 같이 사육두수가 부족하고 원유가 부족한 상태에 원유생산의 근간인 육성우에 집중적인 노력과 투자가 필요할때이다. 따라서 육성우 사양관리의 중요한 몇가지를

짚고자 한다.

육성우 사양관리의 중요핵심

- (1) 초유의 중요성 :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초유급여이다.
- (2) 이유시기 및 이유방법 : 45일령의 이유가 체고,체중에 가장 합리적인 시기이다.
- (3) 반추위용모발달을 위한 전략적 사료급여 : 화학적 자극을 통한 용모발달유도
- (4) 4개월령이후의 조사료급여 : 양질의 조사료를 풍부하게 급여하여 충분한 배통관리
- (5) 성성숙과 체성숙의 교차점 : 13~14개월령, 체중 360~380kg에 초중부
- (6) 첫 분만을 위한 사양관리 : 세밀한 사양관리가 필요하다.

2) 전환기 사양관리에 세밀한 관리

일반적으로 전환기는 분만전 3주에서 분만후 3,4주의 기간을 의미하며 이때 착유우가 생산할 우유의 양을 결정하는 시기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분만전 전환기에 발생하는 생리적변화에 대해 다시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전환기는 반추위용적이 급감하는시기이다.

많은 건물섭취량을 유지해오던 반추위가 건유개시후 상대적으로 적은 섭취량을 통해 반추위 용적이 급감되는 시기이며 반추위 용모가 빠른속도로 활력을 잃어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략적 사료급여가 필요하며 전문컨설팅을 통하여 극복하여야 한다.

- 임신말기에는 간에 생리적 부담이 되는 시기이다.

태아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태아의 노폐물처리를 간에서 주로 담당하여 간에 생리적부담이 되며 태아의 성장이 비장을 압박하여 비장의 역할도 간에서 담당하게 된다.

- Vitamin A가 부족되기 쉬운 시기이다.

태아의 발육이나 분만의 준비로 진행되는 유선의 발달과 반추위용모발달에 비타민 A는 깊게 관여한다. 급여하는 사료 및 조사료의 비타민A함량을 반드시 고려하여 급여하여야 한다.

- 원시란의 발육이 개시되는 시기이다.

난소에서 원시란이 발육하여 배란되기까지 약60일의 기간이 소요되며 분만후 초발정의 원시란은 건유기간에서부터 시작되며 번식효율 개선을 위해 영양관리가 중요한 사항이다.

분만후의 전환기에서는 유즙생산을 위한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 섭취량의 변화가 발생한다. 충분한 건물섭취량이 도달하기까지는 안정적인 사료급여가 중요하며 이기간의 급여관리에 실패하였을 때 발생하는 대사성 질병들에 의해 많은 목장들이 유량손실과 고능력우도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분만후 반추위 용모가 형성되어 충분한 능력을 갖을때까지의 배합사료의 제한 급여가 중요하며 이때까지 10~15일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컨설턴트

와 상의하여 급여프로그램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4. 맺음말

구제역이라는 위기는 이미 여러 차례 겪으며 대한민국 낙농은 탄탄한 성장을 기대해야한다. 이미 세상은 세계를 한올타리로 묶어지는 글로벌시대가 시작되었고 대한민국 낙농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가장 좋은 현명한 대책은 철저한 방역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젖소의 면역력을 향상하는 생산성 계획과 사양관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위기는 기회를 동반한다는 말은 수없이 들어왔으며 성공하는 산업에서도 분명히 입증되어 왔다. 2012년에는 여러가지 여건상 분명히 낙농산업이 재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며 국민에게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식품을 제공하는 마음으로 낙농가와 낙농관련업계는 자부심을 갖고 2012년을 맞이해야 할 것이다. ☒